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부모, 가족, 사회적요인 및 자녀 개인요인을 중심으로

황 혜 원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박사 수료생

김 현 수[†]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고 해당 변수의 효과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한부모 가정 자녀 관련 4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 가족, 사회 및 자녀의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녀 개인요인($ESr = .38$), 사회적요인($ESr = .36$), 가족요인($ESr = .24$)과 부모요인($ESr = .24$)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 개인요인과 맺는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상세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가족기능,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외현화 문제는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과 중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는 가족탄력성, 친구지지와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생의 경우 부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임상적 의의 및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부모가정, 심리사회적 적응, 메타분석,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수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E-mail: khs1004@hanyang.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다양한 구조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모델은 온전한 가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로, 현대 가족의 수많은 범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Teachman et al., 2000).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 중 한부모가구 수의 증가는 OECD 국가들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1).

한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은 양친 중의 한쪽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죽음, 이혼, 미혼 부모, 별거,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게 되며(Anderson & Sabateli, 2011/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2,089만 1천 가구) 중 한부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152만 9천 가구가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진, 2021).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형성의 원인도 다양한데, 이혼이 81.6%, 사별이 11.6%, 기타가 6.7%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형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는 중학생 이상이 56.3%, 초등학생이 31.7%, 미취학 연령이 12.1%의 분포를 보여 청소년 자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유·아동 자녀의 비율도 43.8%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족으로의 전환은 가족구성원에게 있어 삶의 주요한 사건이자 위기 요인으로,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비록 모든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에, 과거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는 부적응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선행 연구(Amato, 2000; Hetherington & Kelly, 2002)에 따르면, 한부모는 일상의 변화, 경제적 변화, 역할 부담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배우자를 잃은 슬픔, 상실감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환(2001)은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문제와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적응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Astone과 McAnahan(1991)은 이혼 가정 자녀는 부모 이혼 경험으로 인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학업 곤란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많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다(Wallerstein, 1985). Clark과 동료들(1994)은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년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비행정도가 부모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사망 이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성인기에 우울이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기존의 가족 담론은 한부모가정 자녀 집단에 대해 부적응의 원인과 그 관련성을 논의하는데 집중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점차 한부모가

정 자녀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적응적인 삶을 방증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박진영(2000)은 가족이 구조적인 약점이 있더라도 가족 내 자원 및 강점을 찾는다면 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의빈(2022)은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집단을 주시하며, 이들이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최현숙(2004)은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래관계 등에서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혀낸 연구결과(박상희, 2009)가 존재한다. 또 정묘순(2011)은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은 가족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아분화도와 학교적응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부모 자녀의 적응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 등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는 개별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그간 진행되어 온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혹은 이보다 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며, 자녀에게 장·단기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경험적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므로(이재희, 김은영, 2019), 그간 선행 연구를 통해 축적된 한부모가정 자녀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 가족, 사회 및 자녀의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속하는 자원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리차드 러너(Lerner, 1994)의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는 성장하는 개인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맥락이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체계로서

개인이 몸담고 있는 물리적 환경, 개인 자신 및 개인과 관련을 맺는 유의미한 타인 모두를 포함한다(장휘숙, 2013). 이렇듯 인간의 발달은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하는 개인과 변화하는 환경 사이의 계속적 교류 및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인 자신을 포함하여 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모,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라 판단되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 방식 및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곽금주, 2016).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여전히 많지만 또래관계의 비중도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만큼이나 또래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된다(이순형 외, 2005). 특히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와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Ainsworth, 1989),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통제적 양육을 할수록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박진아, 2010), 부모의 양육 및 양육 관련 경험이 유아에게 있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애착 및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가 내재화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미자, 2005). 또 김승경(2004)은 여러 지지체계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부모 관련 변인이 학령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가 됨을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주리(2008)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곧바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아존중감, 인지적 특성 등의 자녀 개인요인을 통해 좌우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남영옥(2010)은 또래 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있고 교사지지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학교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개별연구를 메타분석에 포함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응 관련 요인 간 관계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가족, 부모, 사회, 자녀 개인) 간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넷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다섯째,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 간 상관의 효

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간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와 국

회도서관(www.nanet.go.kr)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 ‘한부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혼가정’, ‘미혼모’, ‘싱글맘’, ‘편모’, ‘자녀’, ‘적응’, ‘외현화’, ‘내재화’, ‘우울’, ‘학교생활’, ‘생활만족’ 등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또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전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영유아’, ‘유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등 연구대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대상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분석대상 연구물의 추출 과정을 flow chart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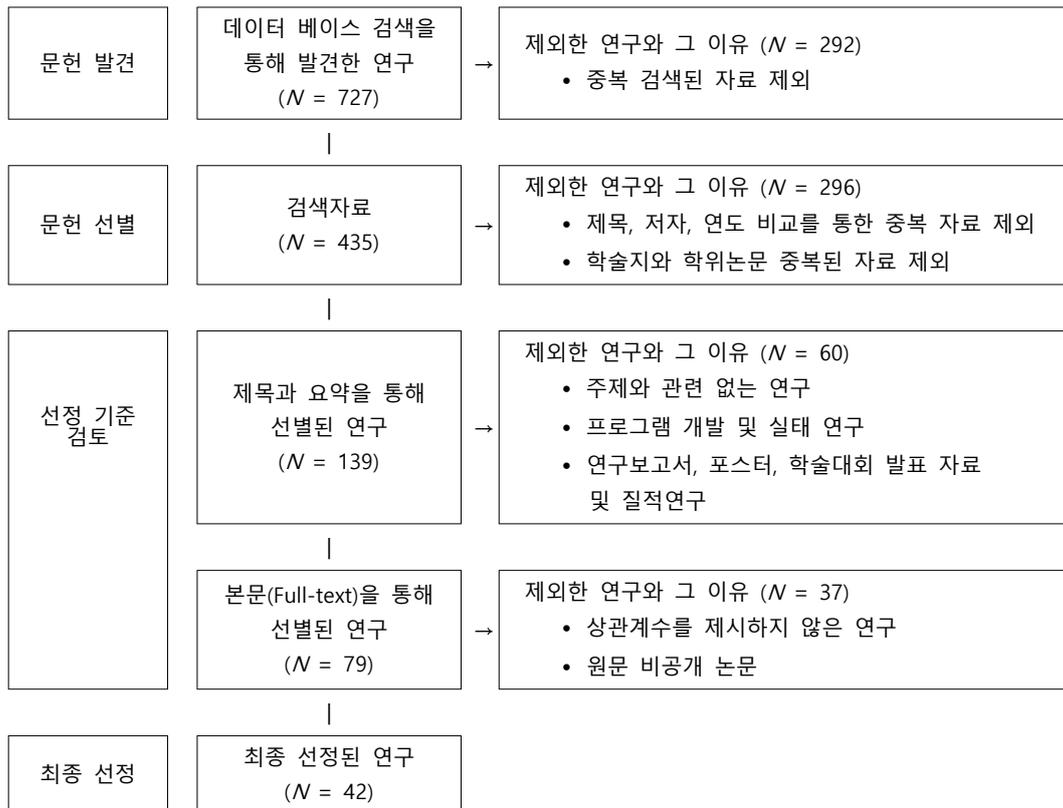


그림 1. PRISMA flow chart

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된 논문은 727편이었다. 이 중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352편을 제외하여 1차적으로 435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435편의 논문 중 제목, 연도, 저자 비교를 통한 중복 자료를 다시 제외하고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중복으로 실린 논문 60편을 제외하여 375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태 연구, 연구보고서,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질적연구 296편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살펴 상관계수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과 원문 비공개 논문 37건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2편의 연구가 본 논문의 메타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42편의 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이 14편, 박사학위논문이 5편, 학술논문이 23편이었다.

분류기준 및 자료 코딩

분류기준

심리사회적 적응 분류기준. Achenbach(1990)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성 문제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에는 위축,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이 포함되며, 외현화 문제는 비행, 공격행동처럼 타인을 해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등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성 문제는 사회행동, 학업수행정도, 사회활동 등을 포괄하여 다루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비행, ADHD 등 외현화 문제를 포함하는

한편,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응과 생활만족 등의 사회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가족, 부모, 사회 및 자녀 개인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와 가족이라는 용어 간에는 종종 근접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부모는 하나의 가족단위에 포함되며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은 가족 생활의 기본 특징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부모요인과 가족요인을 각각의 개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란 용어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상징하며, 가족관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과 관련된 사회적·정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McCarthy & Edwards, 2013). 따라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변인들은 가족요인으로, 부모-자녀 양육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부모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요인 간 차별성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요인에는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탄력성, 가족 SES가 하위요인에 포함되었다. 가족기능이란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체계 내에서 위치와 역할, 전체가족으로서 정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유영주, 1993)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의 측면에서 가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내 구성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Olson et al., 1983), 가족관계의 질, 가족 유대감, 가족지지 등의 하위요인을 가족응집성의 범주에 넣었다. 가족탄력성은 역경에 노출된 가족구성원들에 있어서 적응의 과정을

강조하는 스트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Patterson, 2002), 위기와 역경에 대응하는 가족의 대처와 적응의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양옥경, 김연수,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력을 가족탄력성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부모요인은 한부모가 된 후 양육기간, 양육태도(긍정 및 부정), 의사소통방식(긍정 및 부정),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긍정 및 부정)와 공유시간을 중심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여러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 요인으로,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자율성지지, 합리적 설명, 애정적, 민주적, 수용적 양육 등을 긍정적 양육태도에 포함하였으며 거부적, 지시적, 비일관적 양육 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의사소통방식은 개방적, 반응적이거나 친밀한 경우 긍정적 의사소통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적, 지시적 의사소통방식은 부정적 의사소통방식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인식하는 비양육부모와의 친밀도 및 관계의 질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으로 구분하였다. 비양육부모란 이혼, 별거 등에 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의미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김영희, 한경혜, 2006).

사회적요인에는 친구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전문가지지 및 지역사회지지가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개인요인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기술향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Gresham과 Elliot(1990)은 사회기술향

영역에 책임(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자기통제(self-control), 협력(cooperation), 자기주장(assertion) 등의 개념을 아우르고 있다 (김용석, 홍지영,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 공감능력, 자기조절 등의 요인을 사회기술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자료 코딩

본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연구물에 대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로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으로인과 자녀 개인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각각 코딩하였다. 총 42편의 연구에서 내재화문제관련 66개 효과크기, 외현화 문제관련 77개의 효과크기,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114개의 효과크기를 구하여 최종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값으로 상관계수의 부호를 투입하였으며, CMA3(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에 따라 상관계수 값이 정적과 부적의 결과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방향성 보다는 그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이를 절대값으로 입력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코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심리 전공자이자 심리치료학 교수와 박사과정생이 자료를 교차검토하였다.

자료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CMA3 (Comprehensive Meta-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메타분석 연구에서 동질성 검증(test of homogeneity)은 모든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값인가를 검증하는 것으로(오성삼, 2002), Q값은 효과 크기의 동질성(homogeneity)을 검증하는데 사용된다(황성동, 2019). Q값의 영가설(H_0 : 연구간 실제분석 = 0 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동일하다)이 기각될 때 효과크기들이 동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는 지수로 I^2 가 있으며, 이는 총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 비율을 나타낸다(황성동, 2019). 일반적으로 I^2 가 25%이면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되며 50%이면 중간크기 정도, 75% 이상이면 매우 큰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Higgins et al., 2003). 만약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이질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자료들의 분석을 찾기 위해 하위요인별, 특성별로 조절변수(moderator)의 영향력을 검증한다(황성동, 2019). 본 연구에서는 Q_w 값을 제시하여 같은 하위영역 내 동질성을 검증하였으며, Q_b 값을 통해 하위영역 간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Q_w 값은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성 검사이며(이재림 외, 2013), 유의미한 Q_w 값은 하위영역 또는 조절변수 간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Q_b 값은 범주 간 동질성에 대한 검정량이므로(이재림 외, 2013), 유의미한 Q_b 값은 하위영역 내 효과크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개별연구간 효과크기가 연구의 상황에 따라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선평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선평과모형은 연구 간 이질성이 심한 경우 작은 규모의 연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더 큰 규모의 연구에는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넓은 신뢰구간을 제공한다(김수영 외, 2011).

한편, 본 연구는 출판편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산출하고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unnel plot의 X축은 효과크기, Y축은 표준오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Funnel plot에서 깔대기 모양이 좌우대칭이면 편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Egger의 회귀분석은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설명하여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편향이 발견된 경우,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값을 확인함으로써 누락된 연구 수를 추정 후 메타분석에 반영하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정 후 효과크기의 변화가 10%보다 적으면 출판요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tton et al., 2000).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해당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각 연구물에서 제시된 상관계수 r 을 통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각 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통합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 단위로 변환시켜놓은 것을 의미하며(오성삼, 2002),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검증하는 효과크기인 ESr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의 Z로 변환한 다음, 상관계수 값으로 재변환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Fisher의 Z값이 상관계수보다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다(Borenstein et al., 2009).

분석의 수가 하나인($k = 1$) 경우 개별 변수의 평균효과크기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인군별 평균효과크기 분석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산출된 상관관계의 효과크기는 선행 메타분석에 따라 Cohen(1988)의 기준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효과크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Cohen의 해석 기준에 따라 $ESr \leq .10$ 인 경우 작은 효과크기, $.10 \sim .50$ 사이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ESr \geq .50$ 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황성동, 2019).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크기 간 차이(differences in effect sizes)를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 부른다(황성동, 2019). 본 연구에서는 Hedges와 Olkin(2014)의 Q값 및 이질성을 백분율로 재구성한 I^2 값을 산출하여, 앞서 추출된 자료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동질성 Q값은 5919.71로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개별 효과크기들이 동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질성 I^2 값도 96%로 나타나, 연구 간 이질성이 매우 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및 해석

출판편향

동질성과 이질성 검증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개별 효과크기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출판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 분석과 Egger의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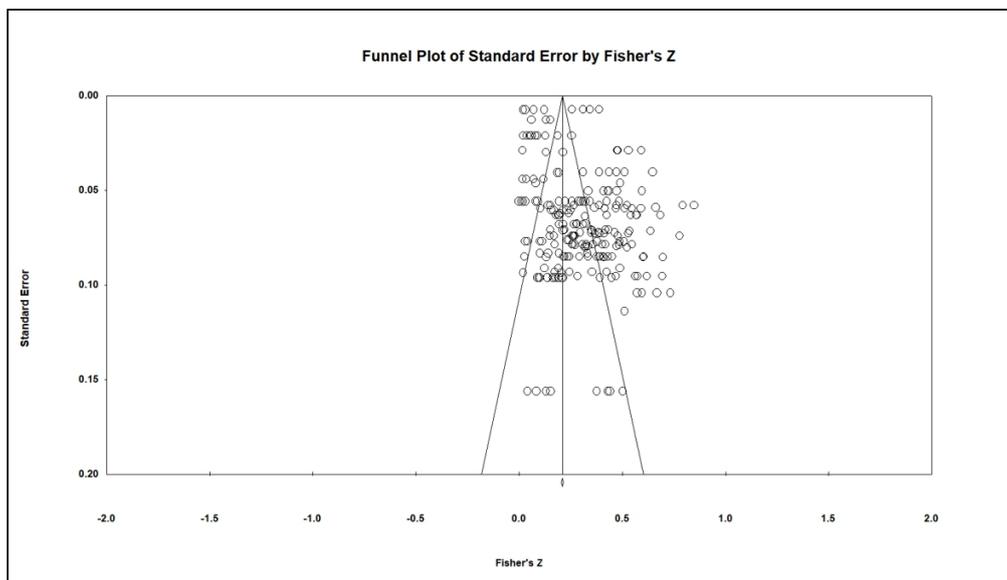


그림 2. Funnel Plot

표 1. Trim-and-Fill 교정값

	교정될 연구	95% CI			Q
		ESr	LL	UL	
관측값		.21	.20	.21	5919.71
교정값	0	.21	.20	.21	5919.71

는 바와 같이 효과크기의 표준오차 분포에 있어 다소의 비대칭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Egger의 회귀분석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Intercept = 2.14, $p < .001$)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Trim-and-Fill 분석을 실시하여 출판편향이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정하려 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ESr = .21 Q = 5919.71로 관측값과 교정값이 동일하여 교정되어야 할 연구는 0으로 나와 효과크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출판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42편의 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이 14편(33.3%), 박사학위논문이 5편(11.9%), 학술논문이 23편(54.8%)이었다. 연구에 대상이 된 한부모가정 자녀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중학생(21.4%), 중·고등학생(14.3%)과 초·중학생(11.9%)이 각각 그 뒤를 이었고,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4.8%)이었다.

표 2. 분석 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징(N = 42)

특성	구분	사례수	%
논문유형	석사학위논문	14	33.3
	박사학위논문	5	11.9
	학술논문	23	54.8
연구대상의 연령	미취학	2	4.8
	초등학생	16	38.1
	초·중학생	5	11.9
	초·중·고등학생	3	7.1
	중학생	9	21.4
	중·고등학생	6	14.3
	고등학생	1	2.4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별 평균 효과크기 분석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군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235개의 효과크기에 대한 전체 효과크기가 .29로 산출되었다. 이는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보면,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각 요인군 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녀개인요인($ESr = .38$), 사회적으로인($ESr = .36$), 가족요인($ESr = .24$)과 부모요인($ESr = .24$)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요인과 맺는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하위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는 $ESr = .25$ 로, Cohen(1988)이 제안한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자녀 개인요인($ESr = .41$)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으로인은 각각

.24, .20, .21의 효과크기를 보여, 자녀 개인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전체 효과크기는 $ESr = .21$ 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녀개인요인($ESr = .24$), 부모요인($ESr = .22$), 사회적으로인($ESr = .18$), 가족요인($ESr = .15$)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들 간 전체 효과크기는 .36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으로인, 자녀 개인요인이 각각 .30, .30, .40, .41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의 효과크기가 다른 두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내

표 3.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 전체 효과크기 분석 결과

분류	변인	k	ESr	95% CI	Q _B	Q _w	I ²
전체		235	.29***	.27~.32	-	5919.71***	96.05
관련변인	가족요인	46	.24***	.19~.30	975.65***	743.70***	93.95
	부모요인	93	.24***	.21~.27		3449.04***	97.33
	사회적으로인	41	.36***	.31~.40		344.01***	88.37
	자녀개인요인	55	.38***	.34~.42		407.33***	86.74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 영향요인별 상관의 효과크기

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 _B	Q _W	I ²
전체		66	.25***	.22~.29	-	2070.7***	96.86
내재화	가족요인	13	.24***	.14~.34	239.16***	235.21***	94.9
	부모요인	33	.20***	.16~.25		1477.09***	97.83
	사회적요인	7	.21***	.12~.30		26.71***	77.54
	자녀개인요인	13	.41***	.31~.49		92.53***	87.03
전체		55	.21***	.16~.25	-	1850.30***	97.08
외현화	가족요인	14	.15***	.10~.20	22.60***	28.62**	54.58
	부모요인	30	.22***	.16~.28		1750.57***	98.34
	사회적요인	2	.18**	.05~.31		.01	.00
	자녀개인요인	9	.24***	.14~.35		48.49***	83.5
전체		114	.36***	.33~.39	-	1117.87***	89.89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	가족요인	19	.30***	.19~.40	194.30***	385.15***	95.33
	부모요인	30	.30***	.25~.34		152.69***	81.01
	사회적요인	32	.40***	.35~.44		257.42***	87.96
	자녀개인요인	33	.41***	.36~.45		128.30***	75.06

* $p < .05$, ** $p < .01$, *** $p < .001$.

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관련 하위요인 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는 대부분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내재화문제는 가족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기능(ESr = .45)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41), 자녀의 자아존중감(ESr = .41), 가족응집성(ESr = .38)과 자녀의 자아탄력성(ESr = .34)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더 유의하게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가족요인 중 가족 SES(socioeconomic status)와 가족탄력성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각각 .14, .26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비양육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는 각각 .29, .24, .14로 중간 효과크기인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 양육태도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의 관계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사회적요인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지역사회지지(ESr = .14)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 5.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하위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 _B	Q _w	I ²
가족요인	가족 SES	7	.14*	.03~.24	149.21***	74.66***	91.96
	가족기능	1	.45***	.32~.56		.00	.00
	가족응집성	4	.38***	.29~.47		11.35**	73.56
	가족탄력성	1	.26***	.15~.36		.00	.00
내재화	공유시간	4	.11	.00~.22	60.75***	10.34*	70.99
	부모양육태도_긍정	7	.29***	.23~.36		13.16*	54.41
	부모양육태도_부정	7	.24***	.16~.31		39.37***	84.76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부정	3	.14*	.03~.25		248.27***	99.19
	양육기간	6	.13	-.02~.28		1093.4***	99.54
	의사소통방식_긍정	4	.18	-.01~.36		11.8**	74.57
	의사소통방식_부정	2	.41***	.22~.57		.00	.00
	교사지지	1	.10	-.09~.28		.00	.00
사회적요인	이웃지지	1	.14*	.03~.25	15.20**	.00	.00
	지역사회지지	3	.28***	.17~.39		11.29**	82.29
	친구지지	2	.15**	.06~.25		.22	.00
	자녀	자아존중감	12	.41***		.50~.31	1.63
개인요인	자아탄력성	1	.34***	.49~.17	.00	.00	

*p < .05, **p < .01, ***p < .001.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요인 중 공유시간, 양육기간과 긍정적 의사소통방식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의 하위요인간 간 상관의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43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방식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가족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탄력성(ESr = .32), 가족기능(ESr = .27)과의 관련성은 가족의 회복력, 대처능력과 순기능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행동상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표 6.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하위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자녀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 _B	Q _w	I ²		
가족요인	가족 SES	5	.06***	.03~.10	24.57***	1.98	.00		
	가족기능	2	.27***	.17~.38		.04	.00		
	가족응집성	6	.15***	.09~.21		2.04	.00		
	가족탄력성	1	.32***	.17~.46		.00	.00		
외현화	공유시간	2	.07	-.05~.20	51.05***	1.90	47.45		
	부모양육태도_긍정	7	.26***	.21~.31		3.88	.00		
	부모양육태도_부정	8	.27***	.20~.35		30.85***	77.31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긍정	1	.04	-.11~.19		.00	.00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부정	2	.17	-.10~.42		695.76***	99.86		
	양육기간	5	.13	-.03~.29		966.43***	99.59		
	의사소통방식_긍정	2	.10	-.12~.30		.26	.00		
	의사소통방식_부정	3	.43***	.28~.56		.43	.00		
	사회적요인	교사지지	2	.18**		.05~.31	-	.01	.00
	자녀	자기효능감	1	.02		-.07~.10	17.28***	.00	.00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8	.27***	.17~.37	31.21***	77.57			

*p < .05, **p < .01, ***p < .001.

있는 유의미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와 각각 .26과 .27로 중간 효과크기가 확인되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으로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교사지지가 .18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편, 가족응집성은 .15로 중간 효과크기를, 가족 SES는 .06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모와의 공유시간, 자녀의 자기효능감 등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이용 및 생활 만족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문제 조명을 위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이용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이용 및 생활만족도는 가족요인 중 가족탄력성(ESr = .56)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친구지지(ESr = .51) 역시 큰 효과크기를 보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이용 및 생활만족도와 주요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

표 7.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하위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 _B	Q _w	I ²
사회적응 및 생활 만족도	가족요인	가족 SES	.03	-.01~.07	290.5***	1.94	.00
		가족기능	.25***	.13~.37		18.61***	78.50
		가족응집성	.41***	.29~.52		61.49***	90.24
		가족탄력성	.56***	.3~.74		12.62***	92.07
	부모요인	공유시간	.24***	.13~.35	39.14***	43.24***	88.44
		부모양육태도_긍정	.36***	.27~.44		36.31***	75.21
		부모양육태도_부정	.31***	.19~.42		.00	.00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긍정	.21***	.15~.26		2.61	.00
		의사소통방식_긍정	.34***	.25~.42		27.66***	78.31
		의사소통방식_부정	.18*	.02~.34		3.72	73.11
	사회적요인	교사지지	.35***	.24~.45	63.07***	102.83***	90.27
		이웃지지	.48***	.39~.56		.00	.00
		전문가지지	.22***	.12~.31		.60	.00
		지역사회지지	.36***	.28~.44		73.08***	87.68
		친구지지	.51***	.46~.56		17.85*	60.78
	자녀 개인요인	자기효능감	.31***	.21~.40	18.00***	3.42	41.55
자아존중감		.39***	.33~.45	97.68***		80.55	
자아탄력성		.49***	.44~.53	4.12		.00	
사회기술		.42***	.32~.52	5.09		60.68	

*p < .05, **p < .01, ***p < .001.

래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자녀 개인요인의 하위요인은 .31에서 .49의 중간 효과크기를 보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녀 개인이 가진 내적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는 교사지지, 이웃지지, 지역사회지지와 각각 .35, .48, .36의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가족응집성(ESr = .41), 긍정적 양육태도(ESr =

.36), 긍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34) 역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가족기능(ESr = .25), 부모-자녀 공유시간(ESr = .24), 비양육부모와의 긍정적 관계(ESr = .21), 부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18)과 전문가지지(ESr = .22)와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다른 하위요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 SES(ESr = .03)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요인 간 관계가 자녀 연령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군의 효과크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초등

표 8.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

자녀 요인	관련 변인	연령	K	ESr	95% CI	Q _B	Q _w	I ²	
내재화	가족요인	초등학생	1	.45 ^{***}	.32~.56	13.47 ^{***}	.00	.00	
		중,고등학생	7	.26 ^{***}	.12~.4		192.04 ^{***}	96.88	
	부모요인	미취학	9	.17 ^{***}	.07~.25	60.99 ^{***}	1247.72 ^{***}	99.36	
		초등학생	2	.32 ^{***}	.16~.47		1.84	45.65	
	사회적요인	중,고등학생	9	.14 ^{**}	.06~.22	-	84.59 ^{***}	90.54	
		중,고등학생	4	.27 ^{***}	.17~.37		9.95 [*]	69.77	
	자녀개인요인	초등학생	4	.44 ^{***}	.35~.53	1.660	5.86	48.77	
		중,고등학생	3	.48 ^{***}	.35~.58		12.22 ^{**}	83.63	
	외현화	가족요인	초등학생	4	.27 ^{***}	.2~.35	19.73 ^{***}	.94	.00
			중,고등학생	8	.09 ^{***}	.05~.12		7.74	9.51
부모요인		미취학	8	.18 ^{**}	.06~.29	9.60 ^{**}	1634.4 ^{***}	99.57	
		초등학생	4	.23 ^{***}	.16~.3		2.43	.00	
사회적요인		중,고등학생	9	.21 ^{***}	.12~.3	-	38.07 ^{***}	78.99	
		중,고등학생	2	.18 ^{**}	.05~.31		.01	.00	
자녀개인요인		초등학생	4	.28 [*]	.05~.48	.74	32.51 ^{***}	90.77	
		중,고등학생	2	.24	-.12~.55		12.72 ^{***}	92.14	
사회적응 및 생활 만족도		가족요인	초등학생	8	.24 ^{**}	.09~.38	3.66	137.05 ^{***}	94.89
			중,고등학생	3	.31 ^{**}	.08~.5		11.71 ^{**}	82.93
	부모요인	초등학생	14	.39 ^{***}	.32~.45	66.55 ^{***}	45.87 ^{***}	71.66	
		중,고등학생	11	.22 ^{***}	.18~.27		27.41 ^{**}	63.52	
	사회적요인	초등학생	23	.38 ^{***}	.31~.44	4.76 [*]	229.71 ^{***}	90.42	
		중,고등학생	6	.42 ^{***}	.36~.47		14.44 [*]	65.38	
	자녀개인요인	초등학생	16	.43 ^{***}	.37~.48	9.22 ^{**}	62.51 ^{***}	76.00	
		중,고등학생	9	.37 ^{***}	.29~.45		27.41 ^{***}	70.81	

*p < .05, **p < .01, ***p < .001.

학생 자녀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 다수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자녀 개인요인 간 효과크기는 중, 고등학생과의 효과크기($ESr = .4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 고등학생 자녀에서 자녀 개인요인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 영향요인 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요인, 자녀요인과 초등학생과의 효과크기는 각각 .27과 .28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가족요인, 자녀 개인요인과 더 큰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 영향요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가족요인은 중, 고등학생과 부모요인은 초등학생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사회적요인은 중, 고등학생($ESr = .42$)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 개인요인은 초등학생($ESr = .43$)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총 42편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

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다양한 군으로 분류하고, 그 영향요인을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의 세부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 범주에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을 포함시켰으며, 이 변인들과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이라는 각각의 영향요인들과 그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재화문제는 자녀 개인요인과 .41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가족, 부모, 사회적요인과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관련 영향요인과 크게는 .24(자녀 개인요인에서), 작게는 .14(가족요인에서)의 상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서는 사회적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이 각각 .40과 .41의 상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가족요인과 부모요인은 각각 .30으로 사회적요인과 자녀개인요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각 요인군 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자녀 개인요인($ESr = .38$)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적 적응과 가장 큰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 결손의 측면보다는 자아존중감, 대처기제와 같은 자녀의 개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밝혀낸 기존 연구결과(안보영, 2012; 이숙, 지선례, 2010)와 일치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를 하위요인별로 상세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 가족응집성과 같은 가족요인의 하위요인과,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방식, 자녀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내재화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이 가족기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한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아동·청소년의 내재화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선행연구(김영희, 안상미, 2008; 이혜림 201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향후 건강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략 확립에 중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가족건강성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자녀 개인요인의 큰 관계성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선아, 2011; 엄연주, 김수영, 2016; 차유림, 2012).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 부모와 같이 의미있고 중요한 주변 인물들의 태도로부터 형성 및 발달되므로(이지은, 2015), 부모, 교사 및 또래의 건강한 기대와 수용적인 태도

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유지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종합해 볼 때,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가족, 부모 및 자녀 개인요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체계 및 자녀의 개인 내적 보호요인 강화와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방식이 외현화문제와 가장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성이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양육태도, 교사 지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 범위는 .15에서 .27로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억압성 의사소통이 자녀의 공격 행동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양현아, 박영애, 2004; 오미정, 2015), 어머니와의 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윤선오 외,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중 부정적 의사소통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양부모가정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자녀의 외현화문제 발생에 있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 가족탄력성이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밝혀진 것은, 자녀가 위협요인에 맞설 수 있는 자원으로 가족탄력성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를 경험

할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자, 지속적인 역경이 있을 때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족강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김미옥, 2001).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내·외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교사 지지 간의 상관의 효과크기가 .18로 나타나, 교사의 지지와 적절한 개입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모-교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를 낮추는데 있어 중요한 방책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 영향요인 간 관계를 상세 분석했을 때, 가족탄력성과 친구지지가 각각 .56과 .51로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의 적응적인 자질 및 회복력과 같은 가족자원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자원 중 하나인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임유미(2007)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요인과 더불어, 사회적요인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Silitsky(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또래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연관 지어 그 함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응집성, 이웃지지, 자아탄력성과 사회기술 등이 각각 .41, .48, .49, .42의 효과크기를 보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 이웃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자아탄력성, 사회기술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큰 관계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박주연(2011)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이웃들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밝혀낸 선행연구(강부자 외, 2012)가 있다. 이는 이웃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부모요인 간 관계를 세부 분석한 결과, .18에서 .36으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나, 다른 영향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성을 드러냈다. 이는 부모요인보다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나 유대감,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개인적 자원 등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부모가정으로 전환되는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자녀가 외부세계에 잘 적응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 개인의 내적 보호요인 발달과 함께, 개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환경으로써의 가족, 나아가 사회환경과의 건강한 교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보다 협력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을 강화함과 더불어, 이웃, 또래와의 건강한 교류 경험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친구 지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또래 상담을 통한 또래와의 건강한 교류와 지지 경험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혜진(2023)은 저소득 여성 한부모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에서 한부모의 자조모임 참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함께 사회적 지지 강화와 심리적 적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부모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한부모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 및 생활만족을 높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중 하나로 가족요인을 살펴보았으며, SES, 가족기능, 가족응집성과 가족탄력성을 가족요인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송신영, 2007; 정연아, 박해미, 202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SES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ESr = .14$), 외현화문제($ESr = .06$)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 관련 변인이 중간 효과크기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에 비해, SES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부

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가족요인이 더욱 영향력 있는 변인군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요인 간 관계가 자녀 연령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초등학생 자녀와 대부분의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동기의 특성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 적응에 대한 부모 역할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태어나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곽금주,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요인이 아동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건강한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사회적이인은 중, 고등학생과 .42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친구, 교사, 이웃 등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적인 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적응과 큰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사회망(social network) 형성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다수의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고 세부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증진 및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또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 부모, 사회, 자녀의 네 요인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영향요인의 하위요인을 나열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요인 및 하위요인과 가장 큰 관계를 가지며, 자녀의 어떠한 연령대에서 어떠한 영향요인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가진 어려움에 따라 개입 및 발전시켜야 할 세부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인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연령층에 대한 조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포함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으로인 간 관련성에 대해 상세하게 탐색하지 못했다. 앞서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사회적으로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으로인 간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성별에 따른 메타분석을 진행하지 않아,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영향요인과 자녀의 성별 간 관계는 조명되지 않은 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이에 추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는데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있는 부모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경우 상관계수 값을 절대값으로 입력하여 변수 간 관계에서의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 간 방향성을 규명해 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형성의 원인에 따라 자녀를 분류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자녀를 단일 그룹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구성 원인(예: 미혼부모, 이혼, 사별)에 따라 자녀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 사회복지*, 23, 29-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13224>
- 강 현 (2015). 메타분석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들. *Hanyang Medical Reviews*, 35(1), 23-32.
<http://doi.org/10.7599/hmr.2015.35.1.23>
- 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학지사.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8156534>
- 김선아 (2011).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인과의 관계: 결혼과정과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6(3), 5-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91159>
- 김성경 (2003).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117-137.
<https://kiss-kstudy-com-ssl.access.hanyang.ac.kr/Detail/Ar?key=2071187>
-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서혜선, 손희정, 신채민, 이윤재, 장보형 (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
https://www.neca.re.kr/lay/bbs/S1T11C102/F/39/view.do?article_seq=5329
- 김승경 (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2486600>
- 김시은, 김현수 (2021).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 발달특성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1), 161-1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1213>
-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4557130>
- 김영희, 한경혜 (2006).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만족도. *대한가정학회*, 44(8), 23-32.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75467223>
- 김용석, 홍지영 (2007). 한국어판 아동용 사회기술 척도. *한국아동복지학*, 24, 177-206.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150512>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82393389>
- 남현주, 윤행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717997>
- 모인경 (2018).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4886303>
- 문은영, 김보람 (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1541>
-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77000954>
- 박승희 (2019).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31(1), 194-212.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7840313>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2486600>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7912822>
- 박진아 (2010). 한부모 모자가정의 가정환경변인, 유아변인 및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9-33.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940408>
- 박진영 (2000).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9929770>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 경 (2021).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설민희 (2009).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1, 140-172.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541608>
-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임신과 출산, 보육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6(8), 404-418.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2044695>
- 송신영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0908578>
- 안보영 (2012).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2853332>
- 양경옥, 김연수 (2001).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1, 115-147.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40040471>
- 양선경 (2008).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1577923>
-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논총*, 11, 115-147.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40040471>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0482833>
- 염연주, 김수영 (2016).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1(3), 367-392.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2130879>
- 오미정 (2015). 한부모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3850328>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 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8729488>
- 유영주 (1993). *한국가족의 기능 연구*. 교문사.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1), 25-47.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182053>
- 이숙, 지선례 (2010).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48(5), 119-128.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82766048>
- 이순형, 김지현, 이옥경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3(1), 99-111.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0454729>
- 이의빈 (2022). 한부모가정 양육 유형과 청소년 자녀 적응 유형 사이의 관계: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 centered approach).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6396188>
- 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1(3), 26-27.
-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

- A99762769
이재희, 김은영 (2019). 영유아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 24(3), 97-110.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6272469>
- 이주리 (2008).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2954157>
- 이지은 (2015).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3975922>
- 이혜림 (2016). 한부모가족 초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이 내현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성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4017686>
- 임유미 (2007). 이혼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0908756>
- 장미경 (2004). 청소년의 사회 망 지향: 사회적 지지 과정과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3-14.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2573718>
- 장휘숙 (2013). *전생애 발달심리학*. 박영사.
- 전유진 (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부자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0809075>
- 정묘순 (2011).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26, 191-228.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3541573>
- 정선영, 정의중 (2011).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19(1), 49-67.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2573855>
- 정슬기, 김지선 (2014). 청소년 문제음주와 관련한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1), 71-83.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99934493>
- 정연아, 박해미 (2023). 부모의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자극 간의 차이. *상담심리교육복지*, 10(5), 111-125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8818274>
- 정초하, 안도희 (2016).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책무성 및 학교 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381-406.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4560871>

- 조혜진 (2023). 지역사회복지관 저소득 여성 한부모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6627868>
- 차유림 (2012). 부모 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2810477>
- 최경일 (2007).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45-168.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4555932>
- 최영진 (202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 法學研究, 29(2), 27-48.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107398545>
- 최은미 (2006).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1005851>
- 최현숙 (2004). 결손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9921503>
- 홍미자 (2005). 한부모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아동연구, 11, 145-160.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A60239866>
- 황성동 (2019).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학지사.
- 황은숙 (2007).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학술정보.
- 황효인 (2021). 청소년 심리·사회적응에 관련된 영향요인의 메타분석.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access.hanyang.ac.kr/link?id=T15782517>
- Achenbach, T. M. (1990). Conceptualizatio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M. Lewis,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15-7142-1_1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https://doi.org/10.1037/0003-066X.44.4.709>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69-128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1269.x>
-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y Review*, 56(3), 309-320. <https://doi.org/10.2307/2096106>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John Wiley & Sons, Lt.
- Clark, D. C., Pynoos, R. S., & Goebel, A. E. (1994). Mechanisms and processes of adolescent bereavement.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100-146.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px9c4-2qHjAC&oi=fnd&pg=PA100&dq=Me>

- chanisms+and+processes+of+adolescent+bereavement.+Stress,+risk,+and+resilience+in+children+and+adolescents:+Processes,+mechanisms,+and+interventions,+100-146.&ots=DInnP3jYka&sig=P24j7mNTV9qU1fi5I9Nq6-GIWAc#v=onepage&q&f=false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rEe0BQAAQBAJ&oi=fnd&pg=PP1&dq=Cohen,+J.+\(1988\).+Statistical+power+analysis+for+the+behavioral+sciences,+Lawrence+Erlbaum+Assoc.+&ots=sxTQLvPVu9&sig=DAq3EFlsIOC9D8VILZZ5PmFid1M#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rEe0BQAAQBAJ&oi=fnd&pg=PP1&dq=Cohen,+J.+(1988).+Statistical+power+analysis+for+the+behavioral+sciences,+Lawrence+Erlbaum+Assoc.+&ots=sxTQLvPVu9&sig=DAq3EFlsIOC9D8VILZZ5PmFid1M#v=onepage&q&f=false)
-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 plot - 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 analysis. *Biometrics*, 56(2), 455-463. <https://doi.org/10.1111/j.0006-341X.2000.00455.x>
- Hedges, L. V., & Olkin, I. (2014).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Academic press.
- Hetherington, E. M., & Kelly, J. (2002). *Divorce reconsidered: For better or worse*. Norton.
- Higgins, J. P.,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https://doi.org/10.1136/bmj.327.7414.557>
- Hill, R. (1986). Life cycle stages for types of single parent families: Of family development theory. *Family Relations*, 35(1), 19-29. <https://doi.org/10.2307/584278>
- Lerner, R. M. (1994). *America's Youth in Crisis: Challenges and Options for Programs and Policies*. Sage Publications.
- Leslie, N. Richards., & Cynthia, J. Schmiege.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3), 277-285. <https://doi.org/10.2307/585557>
- McCarthy, J. R., & Edwards, R. (2013). 가족학의 핵심개념(전영주, 원성희, 황경란, 양무희, 배덕경, 송정숙, 이복숙, 정수빈 공역) 시그마프레스.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https://doi.org/10.1111/1467-6427.00144>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168367-en>
- Osenberg, C. W., Sarnelle, O., Cooper, S. D., & Holt, R. D. (1999). Resolving ecological questions through meta analysis: goals, metrics, and models. *Ecology*, 80(4), 1105-1117. [https://doi.org/10.1890/0012-9658\(1999\)080\[1105:REQTMA\]2.0.CO;2](https://doi.org/10.1890/0012-9658(1999)080[1105:REQTMA]2.0.CO;2)
- Patterson, J. M. (2002). Understanding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33-246. <https://doi.org/10.1002/jclp.10019>
- Silitsky, D. (1997). Correlates of psycho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6(1-2), 151-169. https://doi.org/10.1300/J087v26n01_08

- Stephen A. Anderson, & Ronald M. Sabateli. (2016). 다세대 발달관점의 가족관계 (정문자, 정현숙, 정혜정, 전영주, 정유진 공역). 학지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Sutton, A. J., Duval, S. J., Tweedie, R. L., Abrams, K. R., & Jones, D. R. (2000). Empirical assessment of effect of publication bias on meta-analyses. *British Medical Journal*, 320(7249), 1574-1577.
<https://doi.org/10.1136/bmj.320.7249.1574>
- Teachman, J. D., Tedrow, L. M., & Crowder, K. D. (2000). The changing demography of America's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34-124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1234.x>
- Wallerstein, J. S. (1985). The overburdened child: Some long-term consequences of divorce. *Social Work*, 30(2), 116-123.
<https://doi.org/10.1093/sw/30.2.116>
- Winnicott, D. W. (2022). 도널드 위니컷의 가족과 자녀발달(임경수 역). 학지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원고접수일 : 2023. 06.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7. 14.
게재확정일 : 2023. 07. 18.

Meta-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 Focusing on Parent, Family, Social, and Child Individual Factors -

Haewon Hwang¹⁾

Hyun-Soo Kim^{2)†}

¹⁾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²⁾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in South Korea. Totally, 42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2 and 2022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tudy categorized the factors as parent, family, social, and child individual and explored their correlation with the psychosocial adapta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 individual factors($ESr = .38$) had the largest effect size on children's psychosocial adaptation, followed by social($ESr = .36$), family($ESr = .24$), and parent factors($ESr = .24$).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family functioning and negative parental communication. Externalizing problems had a moderate effect size, primarily linked to negative parental communication. Soci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relied on family resilience and peer support. The impact of variables varied with the child's age,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showing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parent factors and psychosocial adaptation. The implications and clinical recommend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ingle-parent families, psychosocial adaptation, meta-analysis,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 E-mail: khs1004@hanyang.ac.kr